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동방원정

글. 김인겸 역사문화 칼럼니스트

원인과 경과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아버지 필리포스 2세의 유지를 받들어 동방 원정을 추진했지만, 그 본래의 목적은 페르시아 전쟁 중 페르시아의 대왕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의 신들에 가한 모독 행위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이었다. 그는 원정에 앞서 기원전 335년 봄에는 북쪽의 트라키아 인이나 서쪽의 일리리아인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고, 그사이 반란을 꾀한 테베에 대해서는 본보기로 전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노예화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사선전법을 터득하여 페르시아를 격파할 때까지 3번의 전투를 치렀다. 기원전 334년 이른 봄 알렉산드로스는 대군을 이끌고 헬레스폰토스를 건넜고, 5월에 그라니코스 강변에서 처음으로 페르시아군과 싸워 승리를 거두고 소아시아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 그는 소아시아 서안을 따라 남하해 사르디스, 에페소스, 밀레토스, 할리카르나소스를 점령·함락시켜 그 땅을 평정했다. 이어 기원전 333년 11월 초 잇소스에서 벌어진 전투의 양상은 폼페이에서 출토된 한 장의 모자이크 그림에 묘사되어 있다. 이 싸움에서 크



젊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조각상(좌, 헬레니즘 시대, 대영박물관), 그리스 테살로니키의 알렉산드로스 대왕 청동상(우, 니콜라이 카레세네프 2014년 사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정으로 형성된 마케도니아 제국의 판도, 기원전 334~323년 사이

게 승리한 뒤 마케도니아 원정군은 시리아 연안을 따라 남하하여 이집트로 들어간다. 거기서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였는데, 이 도시는 헬레니즘 시대에 소아시아의 페르가문이나 프리엔네와 함께 가장 번영한 도시로 유명했다. 유프라테스강 서쪽의 땅을 평정한 알렉산드로스가 치른 최후의 전투는 기원전 331년 10월 티그리스강 쪽의 가우가멜라에서 벌어진 것이었다. 이 전투에서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군을 결정적으로 괴멸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주요 도시를 점령했으며 페르세폴리스의 웅장한 궁전을 불태웠다. 그 결과 다리우스 3세는 페르시아 대왕으로서 보유했던 실권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이로써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원정의 원래 의의도 달성한 셈이 되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정복 욕구는 그치지 않았다. 그는 새로이 군대를 편성하여 기원전 330년 여름 액바타나를 출발했다. 도망 중이던 다리우스 3세는 부하의 변절로 최후를 맞았다. 그로써 아케메네스 왕조의 페르시아는 기원전 330년 7월에 완전히 멸망하였다. 알렉산드로스는 기원전 327년 봄까지 3년간 박트리아, 소그디아나 지방을 포함하여 지금의 이란 땅을 평정했다. 알렉산드로스가 다음에 눈을 돌린 곳은 인도였다. 그는 기

원전 327년 초여름 대군을 조직해 박트리아에서 출발했다. 이듬해 봄 인더스강을 건너 히타스페스 강변에서 포로스 왕의 군대와 싸워 격전 끝에 격파하고 기원전 325년 7월까지 히타스페스 강 유역의 여러 부족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기원전 323년 6월 13일에 열병 때문에 바빌론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10년 동안 서로는 아드리아해의 동안에서부터 동으로는 인더스강 유역까지, 북으로는 다뉴브강에서 남으로는 이집트까지 방대한 제국을 이룩했다.

군량과 병참

알렉산드로스의 성공적인 정복은 부친 필리포스 2세로부터 물려받은 강력한 군대가 지닌 병참 시스템에 힘입은 바가 컸다. 병참 체제의 기반 위에서 비로소 병사들, 종군한 인력들, 수송용 가축들 등의 숫자가 의미를 가지게 된다. 원정에는 필요에 따른 갖가지 유형의 종군자들이 따라가게 되는데, 그 수는 가우가멜라 전투 때까지 대략 병사 3인당 1명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보급 부대의 수송 능력은 어떤 종류의 가축이나 짐차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원정군에서는 주로 수송용 가축으로 말이나 낙타가 사용되고 행군 속도를 늦추는 소는 동원되지 않았다. 또 필리포스 2세 이래

마케도니아군에서는 공성기를 운반하는 짐차나 부상자들을 운반하는 차를 제외하면 짐차의 사용은 금지되어 천막 등의 물건은 가축들이 직접 지게 하는 방식으로 운반했다. 짐차에 쓰는 가축 말고도 행군 속도를 중요시하여 소는 쓰지 않았다. 그리고 이 원칙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원정에서도 지켜졌다. 가축 한 마리당 수송능력은 평균 250파운드(가량)이었다고 짐작된다.

원정 중 성인 남자의 하루 소비 식량은 곡물 3파운드, 물 0.3 갤런이며, 수송용 가축은 1마리당 하루 곡물 10파운드, 물 8갤런이 필요했다. 헬레스폰토스를 건넌 알렉산드로스의 병력은 48,100명으로 그 가운데 기병은 6,100명이었다. 3명의 병사에 한 명꼴로 종군자들이 있었다고 추정할 때 종군자의 수는 16,000명이고 총인원은 약 65,000명에 달한다. 다음으로 기병용 말 6,100필 외에 한 마리의 말이 50인분의 식량을 운반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최소한 3,100두의 수송용 가축(말이나 낙타 포함)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축은 총 7,400두가 된다.

그렇다면 이 대규모 군대는 원정 때 얼마만큼의 식량을 지참했을까? 위에 밝힌 숫자에 근거해 계산해 보면 주식만을 가져갈 경우 도중에 별도의 보급이 없다면 7일 간이 행군의 한도이다. 만약 물을 구하기 힘든 사막 지대로 들어갈 경우 식수를 가져가야 했기 때문에 수송량은 막대하게 증가하여 병사들에게 하루에 보급하는 식량의 양을 평시의 절반으로 줄인다고 해도 보충 없이 4일 이상 행군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그런데 알렉산드로스는 어떻게 보급과 병참을 성공적으로 해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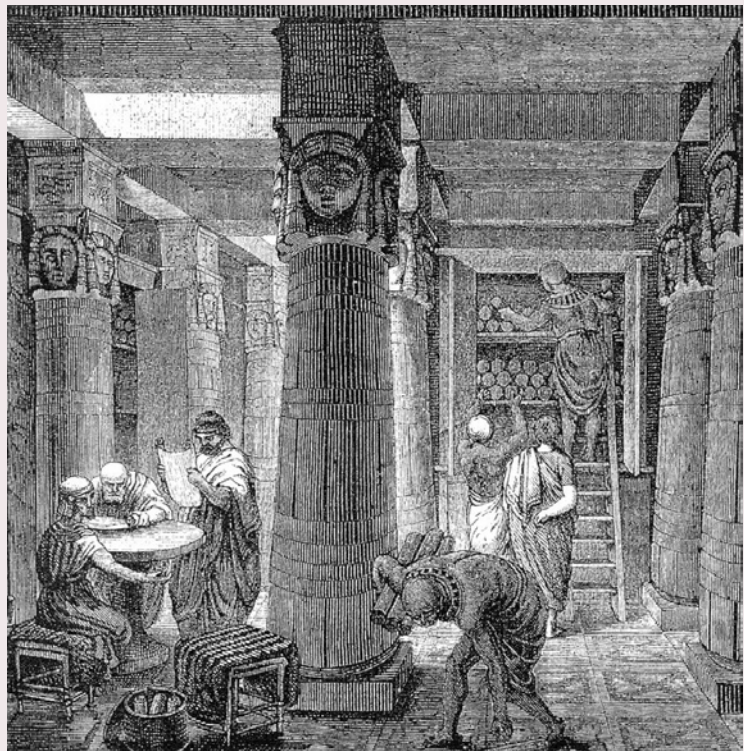
먼저 알렉산드로스는 종군자의 수를 제한하고 행군 시 병사 각자가 자신의 장비나 식량을 짊어지게 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원정군은 같은 양의 짐을 운반하는 데 있어 그 무렵의 다른 군대보다 현저히 적은 가축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또 앞서 말했으니 짐차의 사용도 가능한 한 제한했다. 그렇다면 짐차의 사용과 가축 및 종군자의 수가 많으면 행군 속도나 기동력을 크게 둔화시키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알렉산드로스는 짐차나 여분의 짐을 불태우면서까지 군대의 기동력을 유지하려고 했다. 이것이 동방원정에서 알렉산드로스 군대의 전술적 기동성을 높이고 군의 행동 효율을 비약적

으로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병사 각자가 무구 일체와 식량을 등에 지고 걷는 ‘낙타 같은 군단’이었던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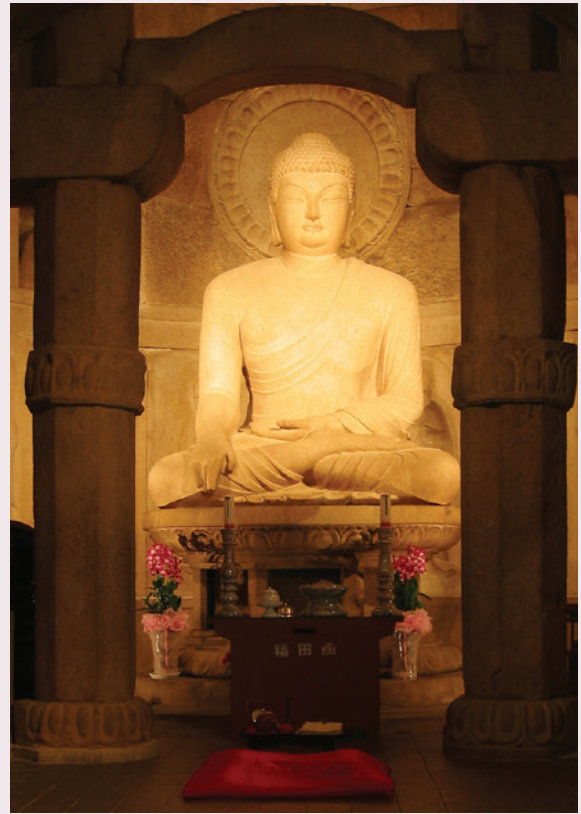
동방원정의 의미와 영향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동방원정에서 각지에 많은 그리스풍의 도시들을 건설하고 또 대규모 집단 결혼에 의해 그리스인과 아시아인의 인종적 융합을 꾀했다. 동방원정 중 건설된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은 지중해 동안에서 인더스강 유역까지를 범위로 했다. 그러나 이 제국은 알렉산드로스의 돌연한 사망으로 인해, 게다가 알렉산드로스가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세상을 등지는 바람에 부하 장군들 사이에 왕좌를 두고 정탈전이 벌어졌다. 후계자들의 전쟁 시대에 제국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아테네에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회가 마케도니아에 대한 선전포고를 결의하였다. 그래서 기원전 323년 라미아 전쟁이 일어났다. 이 전쟁에서는 장군 레오스테네스가 맹활약했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상상도



1~2세기 북파키스탄의 간다라 양식 부처상(좌, 도쿄국립박물관), 경주 불국사 석굴암 본존불(우)

만 승리는 아테네의 것이 아니었다. 라미아 전쟁으로부터 4~5년 후인 기원전 319~318년 아테네의 민회 결의 문에서는 아테네가 마케도니아에 의존하고 있다는 자세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기원전 287년 봄 마케도니아 점령군에 대한 민중의 봉기가 일어나 격전 끝에 프톨레마이오스 1세의 중재로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자유를 되찾아 민주정을 회복했다. 한편 마케도니아에서는 알렉산드로스 사후 그의 배다른 동생인 필리포스 3세 아리다이오스와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록산네 사이에서 낳은 알렉산드로스 4세가 공동 통치의 형태로 왕위를 계승했다. 그러나 필리포스 3세 아리다이오스는 그의 아내 에우리디케와 함께 기원전 317년 가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어머니인 올림피아스의 음모로 살해되었다. 알렉산드로스 4세 역시 그의 어머니와 함께 기원전 310년 카산드로스에 의해 처형당했다. 이로써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혈통은 단절되고 말았다. 이후 마케도니아의 왕위는 카산드로스를 거쳐 안티고노스, 고나타스에게로 넘어간다. 또 후계자들의 40년에 걸친 항쟁

의 결과 이란·메소포타미아에서 소아시아까지를 영유하는 셀레우코스 왕국과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 성립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짧은 치세의 영향은 길었다. 대원정으로 인해 그리스인과 그리스 문화가 오리엔트 지역에 유입되었다. 그리스인은 좁은 폴리스의 틀에서 해방되었고,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의 융합이 일어나 헬레니즘 문화가 성립되었다. 알렉산드로스가 인더스강 유역까지 오지 않았다면 인도 서북부의 간다라 미술도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랬다면 적어도 불국사 석굴암의 본존불의 모습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랐을 것이다. 🌟

* 그림 출처 : 위키피디아